

동방의 암운

중소 이념 논쟁과 불란서의 중공 승인은 60년 대의 세계 양상의 새로운 모습이다. 그리스도교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중공은 확실히 공산주의적 근본주의 (Communitic Fundamentalism)라고 할 수 있다. 중공의 일매암적(一枚岩的)인 공산주의를 고집하면서 근본주의적인 노선을 취하게 된 원인은 지금으로부터 이미 40년 전 즉 1920년 스탈린과 부하린이 합세하여서 중국 공산당에게 압력을 가해서 장개석에게 굴복시켜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든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소련은 민족적 예고이즘과 외교적 잔뼈로써 중국 공산당을 배신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40년 간 중공은 이러한 배신에 분노를 느꼈지만 자체의 힘의 부족으로 침묵을 지켜 왔다. 스탈린이 죽은 뒤 10년 간 중공이 자체의 권력 정비를 위해 침묵을 지켰다는 것이 중공에게 커다란 오차를 가져왔다. 즉 그 10년 동안, 극동, 중동, 아프리카의 나트셀, 카셈, 스카루노 등 모택동이 앞으로의 동지로서 계산에 넣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잠잠하여져 갔기 때문이다.

중공 분쟁의 밑바닥에는 이러한 반 세기 간의 국제 정세의 변천에 기인하였다고 하지만 역시 근본적으로는 중공의 국내적인 실정 때문에 이러한 극단의 근본주의적인 마르크스, 레닌 노선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실정이란 1954년의 자유 비판 허용과, 그 뒤에 대약진 운동의 실패가 그것이다.

중공의 이념 분쟁에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

에 극렬한 공산주의자들의 사고 방식을 조지 오웰이 말하는 이중 사고(doubl think)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이다. 이중 사고는 객관적 현실을 부정하면서도 그 현실을 대단히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마르크스 근본주의자인 모택동은 늘 말하기를 전략적으로(Strategically)는 제국주의를 멸시해야 하고, 책략적으로(Tactically)는 존경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중 사고를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전략적이란 것과 책략적이라는 구별을 분명하게 짓지 못하고 그 접경선에서 마음대로 왕래하는 재간도 함께 구비하고 있다.

아름다운 중공으로서 남은 길은 다만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후진 지역의 국가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설득시켜서 자기의 노선에 따르게 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후진 지역의 국가도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면 과연 이러한 중공의 노선에 따를지가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제야 동방의 암운이 걷히는 날이 이르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